

기본과 원칙을 기초로 한 계육산업 발전 방향 모색

그동안 국민소득 향상의 배경으로 비록 역사는 짧지만 닭고기의 수요와 공급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노력에 의해 닭고기의 생산 전업화가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육용전용 닭의 품종이 보급되고 또한 생산현장에서는 육용전용농장이 건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육계 전문도계장이 건설되어 HACCP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생산농장에서까지 HACCP을 받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 국민의 식문화에도 닭고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조직이 필요해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를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에서는 육계관련 산업분야 종사자들과 소비자에게 닭고기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는 사양, 질병, 도계, 유통 등 육계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지 '월간 닭고기'를 발행 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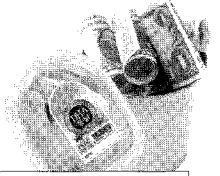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소의 해면성뇌증(海綿性腦症: 狂牛病)의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까지 이르는 동안 속수무책의 관경을 보고 우리나라의 축산관련 기관과 단체의 존재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특히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방송국에는 이를 부추기는 쇼맨십까지 등장,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에게 축산식품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켜 육계산업을 비롯해서 전국 축산물 생산자들에게 괴멸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었으나, 어느 누구 한사람도 책임을 지거나 대책방안의 제시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니 우리나라에서 축산식품의 공급 측에 있는 필자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공급되는 식품 중에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의 공급자로서 기본과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박근식 농학박사
(사)대한수의사회
국가수의전문위원



“앞으로 한국의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생산자와 유통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한국 계육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계육산업의 기초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속전속결의 초동방역으로 AI를 근절하여 유엔 기구인 국제수역국(國際獸疫局, OIE : Organization International Enzootic)의 찬사를 받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가축 가금전염병예방법이 있음에도 법의 집행과 감독이 없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필자는 (사)북방농업연구소에서 북방지역(중국, 러시아 지역)의 가축위생과 방역 등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조사 연구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가축 가금 생산 농장에서 생산물이나 생체를 반출할 때는 법에 의해 농장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생산 이력을 반출증에 기재해 반출차량의 운전자가 휴대하고 길목마다 수의참(獸醫站 : 수의사의 검열을 받는 곳)에서 검문을 하는데 잘못 기재 또는 허위 기재 시에는 법에 따라 즉석에서 벌금 또는 고발을 받게 된다.

벌금, 고발을 받은 내용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집계되어 중국 농업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에 실린다. 이 통계연보에는 그 넓은 중국각지에서 집계된 처벌내용의 통계자료가 담겨져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 한국의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과 집행 그리고 감독이 강화되어 질서 있는 생산 유통이 가능하도록 모든 힘을 한국계육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전국에 있는 생산자와 유통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한국계육협회를 중심으로 한국 육계산업의 기초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사람의 힘은 태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쌓을 수도 있다. 기축년에는 우리 계육산업의 미래를 보장받는 좋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